

# 「再創立」 통해 정보화사회

## 새 轉機 마련

통신정책 연구소 소장 洪 炳 裕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한 정보통신은 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중추적인 요소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미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핵심산업으로써 그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의 소프트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 기존의 독점체제하의 경직적인 사업운영으로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 경쟁적체제로의 재편성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정보처리산업(S/W)과 정보기기산업(H/W)을 포함한 정보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약한 기반구조위에서 짧은기간 동안의 성장임을 감안할때 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이 일정한 궤도에 이르기까지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현재 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고도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정보화를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통신산업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경쟁적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쟁의 활성화에 의한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을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선사용제도의 완화로 업무상 긴밀관계자간의 VAN이 허용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동시에 근본적인 법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공중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조정, 고도서비스사업자와의 경쟁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확보, 그리고 대규모 시설선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독점, 중소기업에 위한 VAN활성화 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년간의 짧은기간동안 나름대로 정보통신에 대한 많은 연구실적을 보유한 우리 통신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머지않아 통신개발연구원으로 재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계와 보다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자료와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의 이익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아직도 유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머지않아 성숙단계로 들어서서 정보화사회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계에 주어지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기술역량, 서비스공급 역량을 증대시키고자하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정부, 연구기관과 각 학계에서 더욱 다져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계가 부당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정보통신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정보통신수요의 창출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및 공급능력의 확충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화사회의 조기 실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낙후되지 않는 눈부신 성장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